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필리핀 음악 산업동향

2021년 01호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THE PHILIPPINES

2021년 01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이슈	<p>▶ 2021년 필리핀 음악 산업동향</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필리핀 음악 시장 개요2. 필리핀 음악 공연 시장3. 디지털 음원 사업자 현황	음악 콘서트 저작권 디지털 음원
주요 차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2020년 최다 재생 음악 콘텐츠▶ 2020년 필리핀 대중 가요(OPM) 인기 순위▶ 필리핀 음원 차트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1.05.04.



심층이슈

I. 2021년 필리핀 음악 산업동향

작성순서

1. 필리핀 음악 시장 개요
2. 필리핀 음악 공연 시장
3. 디지털 음원 사업자 현황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개요 : 코로나19 여파로 필리핀의 2020년 음악 공연 시장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와 함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음악 시장은 소폭 성장하였음. 2014년 스포티파이(Spotify)가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현재는 음악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이 커졌음. 스트리밍 시장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실물 음반 판매,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주수입원이었으나, 불법 복제가 만연했던 탓에 시장이 극도로 열악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 내수 시장에 절대 의존하는 OPM¹⁾이 침체를 겪은 바 있음. 하지만 현재 스트리밍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OPM에 대한 수익 분배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대중들의 관심이 돌아오고 있는 상태.

음악 공연 시장은 집합 제한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억눌린 공연 수요를 온라인으로 흡수하기 시작함. 현재는 온라인 공연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음. 온라인 공연을 위한 로컬 플랫폼도 문을 열고 대규모 행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음악 공연까지 아우르고 있어,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공연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 다양한 뮤지션들을 배출하고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필리핀 음악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와 함께 공연 시장, 디지털 음악 시장, 음원 소비 동향을 알아보하고자 함.

1) Original Pinoy Music, 필리핀 대중 가요를 전반적으로 지칭.

1 필리핀 음악 시장 개요



1. 필리핀 음악 시장 규모

- 2020년 필리핀 음악 시장은 1억 1,400만 달러(1,271억 원) 규모로, 2000년대 이후 축소되기 시작한 실물 음반 시장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으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섬. 라이브 콘서트, 음악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전체 음악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실물 음반 시장은 2017년까지 연간 300만 달러(34억 원) 수준의 매출 명맥을 유지하다가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에 급속히 밀려남.
-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등으로 음악 산업 범위를 넓힐 경우, 2020년 시장 규모는 3억 7,600만 달러(4,245억 원) 수준이며, 2024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하여 5억 5,800만 달러(6,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공연음악 스폰서십	4	4	4	4	4	1	3	4	4	4
공연음악 티켓매출	15	14	14	14	14	4	8	13	12	12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3	2	2	1	1	1	0	0	0	0
디지털음원 스트리밍	14	39	50	71	87	104	120	135	147	154
링백톤	10	9	7	6	5	4	3	2	1	1
실물음반	4	3	3	1	1	0	0	0	0	0
계	50	71	80	97	112	114	134	154	164	171

[표 1] 필리핀 음악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2024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9-2024

- 필리핀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스포티파이(Spotify)와 애플 뮤직(Apple Music)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이 2019년에 새로 진입하였음.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2015년에 불과 1,400만 달러(158억 원)였으나, 2019년에 8,700만 달러(982억 원)로 급성장하였음. 이런 빠른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2024년까지 연평균 12.2%씩 성장해 시장 규모가 1억 5,400만 달러(1,7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필리핀은 영어 사용자가 많아 전통적으로 해외 뮤지션들의 음악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국내 음악 산업이 발전하면서 아이돌 그룹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나오는 등 자국 뮤지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2. 필리핀 저작권

- 필리핀 저작권법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베른 협약을 기초로 입법했으며, 1997년 만들어진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포함되어 있음. 지식재산권법과 함께 여러 매체에 대해 광범위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²⁾이 별도로 존재하며, 지식재산권법은 2001년과 2013년에 개정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조항’을 삽입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권 업무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I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과 ‘필리핀 국립 도서관’(NLP,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³⁾의 저작권 담당 부서가 협력하고 있으며, 음반 신탁관리 단체는 ‘필리핀 작곡가 작사가 음반 제작자 협회’(FILSCAP, Filipino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Inc, www.filscap.org), ‘필리핀 실연자 권리 협회’(PRSP), ‘필리핀 저작권 라이선싱 협회’(FILCOMS, Filipinas Copyright Licensing Society, Inc)가 있음.
- 음반 제작자는 저작권접권을 통해 i) 직간접적으로 복제된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와 복제물을 판매, 대출, 대여할 수 있는 권리, ii) 음원의 원본이나 사본을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iii) 일단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저작권접권의 경우 보호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그 효력이 지속하며, 또한 저작권접권에 의해 방송 사업자는 음악 및 음반의 경우 녹음이나 녹화가 일어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됨.
-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형사상 제재로는 1차 위반 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과 5만 페소 이상 15만 페소 이하 벌금, 2차 위반 때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과 15만 페소 이상 50만 페소 이하 벌금, 3차 위반 때 6년 이상 9년 이하 징역과 50만 페소 이상 150만 페소 이하 벌금을 부과함. 불법 복제로 판매하는 CD/DVD 신고 접수는 광매체위원회(Optical Media Board)에서 담당함.
- 저작권법의 수위 높은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불법 음원 유통 비율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매우 높은 편임. ‘불법 복제 대응 아시아 영상매체 협회’(CAP, 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s Coalition Against Piracy)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의 밀레니얼 세대(25~34세) 응답자의 53%가 불법 복제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밝힘. 같은 설문에 인도네시아 밀레니얼 세대 응답은 28%로 나왔으며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수준임. 이들 두 나라는 정부가 불법 복제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자체를 막는 등 불법에 대한 대응 의지가 뚜렷한 반면, 필리핀은 정부의 대처가 다소 미온적임.

2)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 담겨 유통되는 저작권을 보호.

3) 현재 필리핀 내 저작권 등록은 필리핀 국립 도서관 내 저작권 담당 부서 및 지식재산청에서 가능.

3. 필리핀 음악 산업 발전 과정

- 필리핀은 과거 300년 이상 스페인 식민 지배를 당해 스페인 음악의 영향이 곳곳에 있으며, 특히 스페인의 영향이 강했던 타갈로그어 및 비사야어 사용 지역⁴⁾의 전통 음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필리핀 대중 음악은 OPM(Original Pinoy Music)으로 불리며, 초기 OPM은 1970년대 후반 ‘마닐라 사운드’(Manila Sound)⁵⁾를 잇는 특정 발라드를 일컫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필리핀 뮤지션이 작곡했거나 필리핀 가수가 부른 대중 가요를 전반적으로 지칭함. 초창기부터 OPM의 유행은 표준 타갈로그어와 영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마닐라에서 시작됐으며, 표준 타갈로그어 외 필리핀 토착 언어로 불리는 노래들은 유행하는 경우가 드문 편.



[그림 1] 2020년 11월 21일 진행한 ‘SB19’ 버추어 콘서트
※ 출처 : 버추어 콘서트 플랫폼 글로벌라이브 (www.global.live)

-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OPM 팝은 라이브 밴드를 많이 배출해냈으며 ‘피노이 록’(Pinoy Rock)으로 불리는 록 음악이 자국 대중 음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0년대 이후에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으로 대중 음악에 대규모 투자 여력이 생기면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록 음악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빌보드(Billboard)⁶⁾에서도 성과를 내는 뮤지션이 나오면서 필리핀 자국 대중 가요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필리핀의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2019년 OPM 밴드 ‘디셈버 애비뉴’(December Avenue)의 〈당신이 아니라면〉(Kung ‘Di Rin Lang Ikaw, 2019)이 연간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 처음 기록된 데 이어 2020년에도 OPM 밴드 ‘매그너스 헤이븐’(Magnus Haven)의 〈이미지〉(Imahe, 2018)가 다시 정상에 올라 OPM이 재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음.

4) 타갈로그어는 현재 필리핀 국어로 지정된 필리핀어의 모어이며, 로손섬 중부와 남부에서 주로 사용. 비사야어는 세부섬을 중심으로 루손 남부 및 민다나오 북부에서 주로 사용.
5) 1970년대 초부터 후반까지 인기를 얻었던 필리핀 대중 가요 장르로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며 전체적으로 로큰롤, 재즈, 디스코, 펑크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음.
6) 채리스 펌펜코(Charice Pempenco), 2010년 데뷔 앨범 〈채리스(Charice, 2008)〉가 미국 빌보드 8위 달성.

- 한국 K-팝 과 일본 J-팝이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얻은 데 영향을 받아, 필리핀에서도 아시아 고유의 가치와 자국의 정서를 노래하는 피노이 아이돌 그룹이 속속 데뷔하고 있음. 필리핀인 멤버들로 구성된 최초의 아이돌 그룹 ‘마닐라 48’(MNL48, 2018 년 데뷔) 이후, ‘SB19’(2018 년 데뷔), ‘비쥬와이오’(BGYO, 2020 년 데뷔), ‘비니’(Bini, 2020 년 데뷔), ‘알라맛’(Alamat, 2021 년 데뷔) 등이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고 있음. 아이돌 그룹이 큰 성공을 누리고 OPM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과 유사한 방식의 음악 차트 프로그램, 음악 버라이어티 쇼⁸⁾ 등이 다수 편성되어 자국 팬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음.
- 필리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비바 레코드’(Viva Record)가 기획한 9인조 아이돌 그룹 ‘알라맛’은 2021년 2월 데뷔와 동시에 발표한 〈Kbye〉(2021)가 ‘빌보드 넥스트 빅 사운드’(Next Big Sound) 차트에 입성하고, 각종 필리핀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음. 〈Kbye〉는 필리핀 정서가 담긴 멜로디와 가사로 되어 있고, 각 멤버들의 출신 지역 언어를 노래 가사에 사용하면서 현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필리핀인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아이돌 그룹 ‘SB19’의 성공 이후 필리핀의 대형 연예기획사⁹⁾들이 잇달아 아이돌 그룹 제작에 나서고 있음. 필리핀 최대 미디어 기업 ABS-CBN은 SHA(Star Hunt Academy)를 설립하면서 한국 아이돌 양성 교육 기관¹⁰⁾과 협업하여 전국 각지 오디션, 장기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관련 버라이어티 쇼 등을 제작하면서 한국형 아이돌 제작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음. 완성도 높은 아이돌 그룹이 계속 배출되면서 앞으로 필리핀 P-팝 아이돌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

2 필리핀 음악 공연 시장



1. 필리핀 음악 공연 시장

- 팬데믹 이전까지 필리핀 음악 공연 시장 규모는 연간 1,400 만 달러(158 억 원) 규모였으나 2020년에는 400 만 달러(45 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앞으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4~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콘서트, 뮤직 페스티벌, 뮤지컬, 음악 쇼, 오페라 등을 모두 포함한 뮤직 이벤트 사업의 경우 ‘평균 이용자당 수익’(ARPU)이 22.8달러(25,820 원)이며 전체 인구 대비 이용자 수는 2%로 나타남.
- 필리핀 음악 산업은 코로나 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으로 꼽히고 있음. ‘필리핀 국립 예술문화

7) 조쉬(Josh), 파브로(Pablo), 스텔(Stell), 켄(Ken), 저스틴(Justin) 5명으로 이루어진 보이 그룹으로 한국 기획사 ShowBT가 제작. 2019년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고업〉(Go Up)이 필리핀 주요 음악 차트 ‘Myx 데일리 탑텐’(Myx Daily Top Ten)에서 53일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1위 달성한 노래로 기록.

8) MYX 채널 MYX Daily Top Ten, MYX Hit Chart, ABS-CBN 채널 ‘올 아웃 선데이’(All-Out Sunday, 2020년 5월 첫 방영), GMA 채널 ‘선데이 눈타임 라이브!’(Sunday Noontime 라이브!, 2020년 10월 첫 방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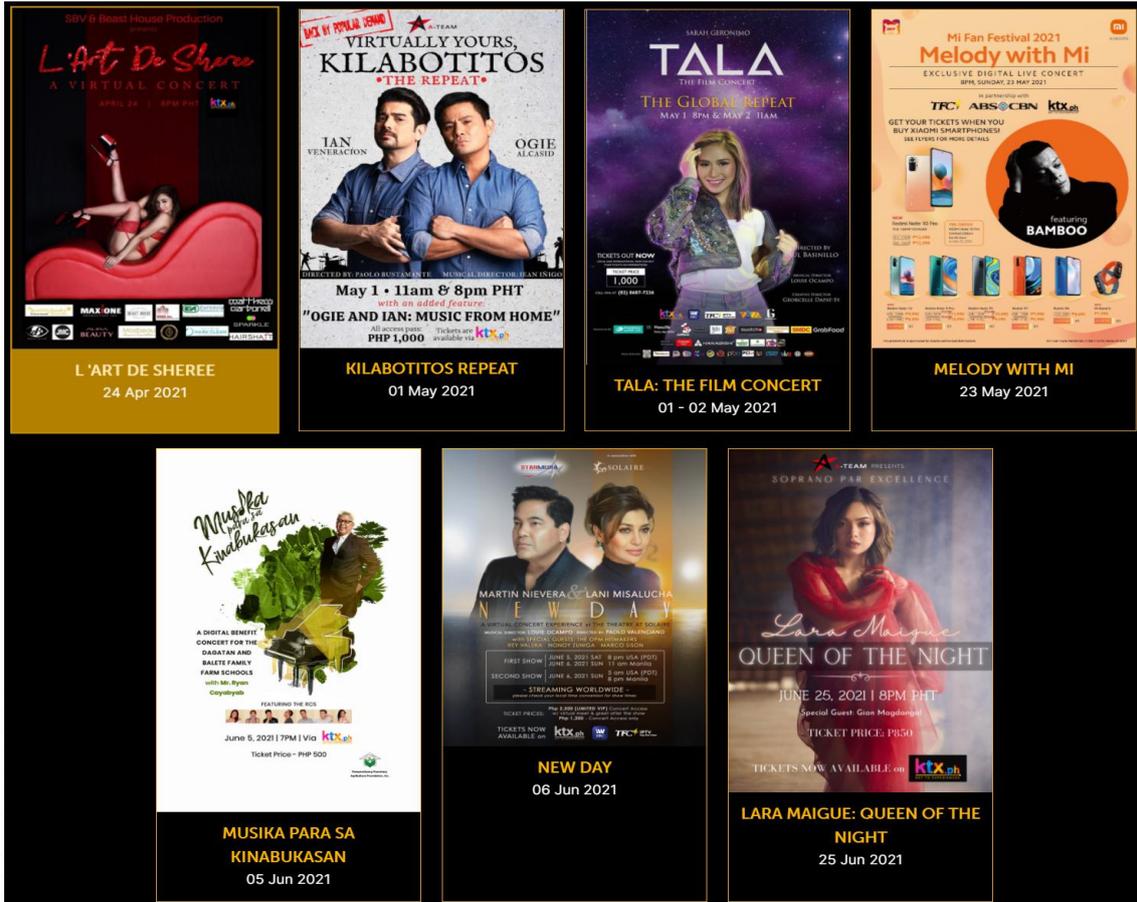
9) 비바 레코드는 알라맛, ABS-CBN은 MNL48을 각각 기획.

10) 한국 뮤닥터 아카데미(MU:Doctor, www.mudoctor.kr)

원'(NCCA,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은 필리핀 전역에 약 1만 5,000 명의 프리랜서 공연 산업 종사자가 있으며, 팬데믹 기간에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고 밝힘. 음악 전문지 '밴드왜건'(Bandwagon)이 필리핀 뮤지션 101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가 팬데믹 기간 동안 수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22%는 기존 수입보다 81~100%가 줄었다고 응답. 수입 감소는 음악 작업 시간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응답자 44%가 이전보다 음악 관련 작업 시간이 줄었다고 답함.

- 코로나 19로 인해 필리핀은 2020년 3월 12일부터 마닐라 광역권을 포함하여 '강화된 지역 사회 봉쇄 격리 조치'(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와 '일반 지역 사회 봉쇄 격리 조치'(GCQ, General Community Quarantine)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집합이 이루어지는 음악 공연 행사는 2020년 2월 말 이후 무기한 연기되었음.
-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활발히 열려, 2019년에는 '슈퍼주니어'(12월 15일), '아이유'(12월 13일), '엑소'(8월 24일), '트와이스'(6월 29일)와 같은 슈퍼스타급을 포함해 20여 회 한류 공연이 개최되었음. 2020년 2월까지 '에릭남'(1월 10일, 뉴프론티어 극장), '위너'(1월 25일, 몰오브아시아 아레나), '김현중'(1월 25일, 스카이드), '티파니'(1월 25일, 뉴프론티어 극장), '세븐틴'(2월 8일, 몰오브아시아 아레나), 'NCT 드림유닛'(2월 29일, 뉴프론티어 극장) 등의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이후 행사는 연기.¹¹⁾
-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음악 공연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K-팝은 필리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공연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온라인 콘서트는 물리적인 거리 제약이 없어 다양한 K-팝 공연에 필리핀 팬들이 유입되고 있음. 2020년 12월 27일 열린 '블랙핑크'의 첫 온라인 콘서트에서 필리핀 이용자 숫자가 미국과 태국에 이어 3위를 기록.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그리고 필리핀 국립 예술문화원이 공동으로 '2020 PhilKor Festival'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SB19', 'KZ Tandingan' 등 필리핀 인기 가수들 뿐만 아니라 SH A 연습생, K-팝 커버 댄스 우승자들이 출연하였음.

11) 런닝맨 팬 미팅과 혁오 콘서트는 각각 2020년 2월 9일, 4월 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를 거쳐 현재는 무기한 연기로 최종 결정.



[그림 2] 온라인 플랫폼 'ktx.ph' 2021년 2/4분기 개최 예정 콘서트 목록
(출처: ktx.ph 홈페이지)

- 오프라인 공연 행사가 장시간 멈추면서 유명 가수들의 온라인 공연이 이어지고 있음. 최정상 인기 밴드 중 하나인 '벤&벤'(Ben&Ben)은 '강화된 지역 사회 봉쇄 격리 조치'(ECQ)가 시행된 팬데믹 초기부터 필리핀 학생들의 원격 교육 장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금 콘서트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음.
- 이후 인기 연예인 '올든 리처드'(Alden Richards)의 <Alden's Reality>(2020년 12월 8~9일)와 필리핀 대표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BYE2020>(2020년 12월 31일)¹²⁾ 등의 온라인 콘서트가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열림. 온라인 공연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ktx.ph' 및 '티켓투미'(Ticket2Me)와 같은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이 나와 현재는 다양한 온택트 방식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음. 특히 '티켓투미'의 경우 대형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행사 플랫폼이 같이 개설돼 중소 규모 콘서트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되고 있음.

12) 'SB19', 'Ben&Ben', 'Tala'와 같은 필리핀 최정상급 가수 28명과, '막시밀리안'(Maximilian, 덴마크), 테이트 맥레이(Tate McRae, 캐나다), 피치 트리 라스칼(Peach Tree Rascals, 미국) 등이 출연하였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및 스카이크레이블에서 무료로 방영.

3 디지털 음원 사업자 현황



1. 디지털 음악 시장 개요 및 규모

- 현재 필리핀 음악 시장 매출은 디지털 스트리밍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팬데믹 이후 인터넷 이용률이 더 높아지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대 초 불법 복제의 범람으로 실물 음반 시장이 급격히 무너짐. 음반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 필리핀 국내 뮤지션들의 성장성을 꺾은 바 있음.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인프라의 발달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자리잡으며 음악 시장이 다소 정상화되고, OPM 산업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됨.
- 필리핀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초기에 진출했던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이 가장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리핀 스포티파이 가입자는 하루 평균 172분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2020년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당 연 평균 지출액(ARPU)¹³⁾은 5.4달러(6,040원)로 미국의 79.1달러(8만 9,340원)와 글로벌 가입자의 27.5달러(3만 1,070원)에 크게 못미침. 하지만 스트리밍 매출이 2024년까지 연 평균 12.2%씩 성장하며 앞으로도 음악 산업의 주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음원 다운로드와 실물 음반 매출은 각각 100만 달러(11억 2,900만 원) 미만을 기록함. 특히 2020년에 오프라인 매장의 정상 영업이 대부분 불가능해지면서 실물 음반 판매는 급속 퇴조, 앞으로 필리핀 음악의 핵심 유통은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

2.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감상 주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 업체들이 필리핀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음.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는 비교적 일찍 진입해 안착했으나, 호주 음원 서비스 업체 '구베라'(Guvera)는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했던 초기에 들어와 고전하다 2017년에 결국 철수 한 바 있음.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필리핀 이용자 수가 전 세계 스포티파이 이용 국가 중 14번째임. 중국 텐센트의 '죽스'(Joox)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필리핀 시장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OPM을 유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3) 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 1명당 특정 기간 동안 지불한 평균 금액

서비스명	무료 버전	국가	일반 가입자 가격(월간)	필리핀 내 출시일	비고
애플뮤직 (Apple Music)	X (무료체험 3개월)	미국	Individual - ₩129 Family - ₩199 Student - ₩69	2015.06	Student 가입자 애플 TV 무료 이용
스포티파이 (Spotify)	O (무료체험 3개월)	스웨덴	Personal Plan - ₩129 Family Plan - ₩194 Student Plan - ₩65	2014.09	필리핀 시장 점유율 1 위
유튜브 뮤직 (YouTube Music)	O (무료체험 30일)	미국	Premium - ₩159 Family - ₩239 Student - ₩95	2019.11	구글어시스턴트 스마트 스피커 지원
디저 (Deezer)	X (무료체험 30일)	프랑스	Individual - ₩129 Family - ₩195 Deezer HiFi - ₩250	2012.08	고음질 음원 (HiFi) 제공
라디오 필리핀 (Radio Philippines)	O (라디오 청취)	프랑스	무료	2015.3	전국 300 개 이상 라디오 채널 무료 청취

[표 2] 필리핀 주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출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자체조사, 2021년 4월)



주요 차트정보

순서

- ▶ 필리핀 2020년 최다 재상 음악 콘텐츠
- ▶ 2020년 필리핀 대중 가요(OPM) 인기 순위
- ▶ 필리핀 음원 차트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1 필리핀 음원 차트



1. 필리핀 2020년 최다 재상 음악 콘텐츠

- 스포티파이(Spotify)가 발표한 2020년 필리핀 결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가수로 필리핀 밴드 'Ben&Ben'¹⁴⁾이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각각 2위와 5위에 올라 K-팝의 인기를 확인 할 수 있음.

순위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가수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음원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필리핀 가수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필리핀 노래
1	Ben&Ben (필리핀)	Imahe (Magnus Haven)	Ben&Ben	Imahe (Magnus Haven)
2	방탄소년단 (한국)	Intentions (Justin Bieber)	Moira Dela Torre	Make it with you (Ben&Ben)
3	Taylor Swift (미국)	Make it with you (Ben&Ben)	Matthaios	Pagtingin (Ben&Ben)
4	Justin Bieber (캐나다)	Beautiful Scars (Maximillian)	December Avenue	Teka Lang (Emman)
5	블랙핑크 (한국)	Someone You Loved (Lewis Capaldi)	Parokya Ni Edgar	Hindi Tayo Pwede (The Juans)

[표 3] 필리핀 2020년 가장 많이 플레이된 음악 순위
(출처: 밴드왜건(bandwagon), 2020.12)

2. 2020년 필리핀 대중 가요(OPM) 인기 순위

-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규 앨범 뿐 아니라 과거 인기를 얻었던 앨범과 음원들도 재조명을 받게 됨. 필리핀 언론사 '래플러'(Rappler)는 '2020년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필리핀 대중 가요 10선'을 발표.

14) 2015년 결성된 포크팝, 팝록 밴드로 <Ride Home>(2017), <Maybe the Night>(2017), <Lifetime>(2020), <Doors>(2020) 등의 히트곡을 연이어 발매하며 필리핀 국민 밴드로 불리고 있음.

순위	가수	제목	유튜브 동영상 링크
1	Sarah Geronimo	Tala	https://youtu.be/ahpмуикко3U
2	Rico Blanco	This too shall pass	https://youtu.be/UnJhKi-jlC0
3	TJ Monterde	Puhon	https://youtu.be/GcgPbu5CxX8
4	Sponge Cola	Lumipas Ang Tag-araw	https://youtu.be/tJAwcAxnew4
5	Gagong Rapper	Kabet	https://youtu.be/eF4Q8BGRkis
6	Dicta License	Inosenteng Bala	https://youtu.be/y_9XsvsFatY
7	Ziid	Sinungaling	https://youtu.be/ZliXjefX9m8
8	Ben&Ben	Di 'Ka Sayang	https://youtu.be/alj2ndUEib8
9	Arthur Nery	Binhi	https://youtu.be/flAn0JJTjSI
10	Bini	Da Coconun Nut	https://youtu.be/eZfeW9WDwmA

[표 4] 2020년 필리핀 인기 대중 가요
(출처: 래플러(Rappler)), 2020.12.31. 기사)

3. 필리핀 음원 차트 (2020년 4월)

- 케이블 방송에서 24 시간 음악을 방영하는 'Myx'는 주간 단위로 국내 및 해외 음원 차트를 발표하고 있음.

순위	가수	제목	유튜브 동영상 링크
1	SB19 (필리핀)	What?	youtube.com/watch?v=OAwv-qrSnPs
2	Olivia Rodrigo (미국)	Drivers License	youtube.com/watch?v=ZmDBbnmKpqQ
3	Moira Dela Torre (필리핀)	Paubaya	youtube.com/watch?v=25Cs_vdmll
4	Got7 (한국)	양코르	youtube.com/watch?v=25Cs_vdmll
5	BGYO (필리핀)	The Light	youtube.com/watch?v=y2un_yj1IEU
6	마닐라 48 (필리핀)	River	youtube.com/watch?v=T38K-QoYtII
7	Alamat (필리핀)	Kbye	youtube.com/watch?v=l7vPP-yIhY0
8	투머로우바이투게더 (한국)	Blue Hour	youtube.com/watch?v=RuGE7rhuT14
9	방탄소년단 (한국)	Life Goes On	youtube.com/watch?v=-5q5mZbe3V8
10	Bruno Mar/Silk Sonic (미국)	Leave The Dorr Open	youtube.com/watch?v=adLGHcj_fmA

[표 5] 2020년 'MYX' Hit Chart
(출처: Myx.Global, 2020년 4월 4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김영수 센터장	+62-21-2256-2396	splyskim@kocca.kr
주윤지 주임	+62-21-2256-2396	juliajoo@kocca.kr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01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김영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장	주윤지 주임
집필자	신진세 대표 (PT. EPIN) 이수연 과장 (PT. EPIN)	
발행인	정경미 (원장직무대행)	
발행일	2021년 7월 13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